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새로지은건물로 처음 가서 미리 알고 있던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수빅홀리데이빌라 라는 풀 빌라에서 생활하였고 건물이 총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하나가 수업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풀빌라라서 어학연수가 아닌 그냥 휴양을 즐기러온 가족분들도 계셨습니다. 시설과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식사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위치는 올롱가포시내에서 16명 정도 탈 수 있는 FB 또는 택시를 이용해 수업후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면 5분정도 걸리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걸어서 10분거리에 스타벅스와 대형마트 2개 줄리비, 맥도날드, KFC, 한인마트, 한국음식점 모두 있어서 좋았습니다. 위치면에서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첫날가면 수빅투어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티와 함께 레벨테스트를 하여 수준에 맞는 스터디그룹이 4-5명씩 형성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수업 4타임, 그룹수업 4타임으로 이루어집니다. 1:1은 2번의 READING과 2번의 VOCA로 총 4분의 선생님을 만나 진행되고 그룹수업은 FACE TO FACE , TOEIC SPEAKING 2타임, , MMC 총 3분의 선생님을 만나 진행됩니다. 8시간동안 다른선생님들을 만나니 전혀 지루함 없이 진행되고 영어를 정말 못하는 저였지만 하루에 8시간 어제 뭘했는지만 말해도 마지막시간엔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도를 나가야하는 토익스피킹수업 말고는 전혀 힘들지 않고 선생님과 놀면서 수업하는 분위기로 재미있게 공부할수있습니다. 50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한 필리핀 문화 자체가 숙제가 거의 없어서 숙제

	가 있더라도 10분안에 해결되는 숙제입니다. 정말 영어르 못하셔도 걱정 없이 신청할수있어요.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첫번째 Activity는 바다에서 하는 요트투어였는데 준비물은 수영복? 정도 랍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구명조끼입고 바다수영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두번째 Activity는 Mount smat 이라는 산 + 박물관에 갔는데 차를 타고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 가기전에 네이버로 역사를 조금 찾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번째 Activity는 원래 클락투어라고 해서 영화관 + 쇼핑 + 박물관을 가는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평일에 워터파크에 갔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파크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바다와 이어져 있어서 위험하지 않고 저희 끼리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수있었어요! 세 가지 액티비티 모두 추가비용은 생기지 않았고 부담없이 주말오전을 알차게 보낼수있어요 ! 그 외에 화요일 오후 3-5시에는 학교에서 준비한 Activity를 하는데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sport day라는 Activity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시간이었어요 ππ 또 하고 싶은 그런.. 정말 더웠지만 좋았답니다! + 숙소에 수영장이 있으니 꼭 수영복!!! 꼭!!! 챙겨가시길 추천할께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제가 다녀온 겨울은 건기라서 땀도별로 나 안나고 수업이 끝난 후 인 저녁시간은 해가지면 가을처럼 시원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동안 매일 맑은 하늘과 구름을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는 하루 완전 잠깐 내렸는데 저희 모두 비맞으면서 집에 왔는데 그것도 추억으로 남아요 !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저도 가기전에는 필리핀 총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럽보다 필리핀이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 한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라 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항상 자기자신에 안전은 스스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도나 신호등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위험할것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현지 선생님들께 꼭 여쭙보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시설과 분위기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들 착하신 분들 이십니다. 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비에서만 터지는 와이파이와 여자방 하우스키퍼도 남자 3-4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말 좋았습니다! 또 가고싶을정도로요...
식사	학교식당 (점심) 외부식당 (저녁)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은 거의 한식이고 반찬하나정도 필리핀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고.. 지금도 그리울 정도예요 ππ 과일도 자주나오고 국도 반찬도 다 맛있어요! 저녁도 처음에는 밖에서 먹다가 점점학교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걱정없이 맛있어요!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필리핀 교통은 크게 , fb(대형택시), 택시, 지프니 (버스), 트라이시클 (3명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이렇게 있는데 첫 날 수빅투어에서 선생님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그때그때 인원수에 맞춰 이용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기록을 안했습니다.	
식비	하루에 약 120 - 380페소	스테이크는 일인당 약 1000페소
교통비	하루에 약 40-50페소	
합계	550달러 / 27,000페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정말로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하기에 어찌보면 학교를 다닐 때 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달을 투자해서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학교의 경우 오티까지 하고 8시간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귀국한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목적이라면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더운 나라여도 두꺼운 집업정도는하나 챙겨주시고 선생님들 선물로 한국라면이나 과자같은거 드리면 엄청좋아하십니다! 수영복은 필수니까 꼭 챙겨주시고~ 노트북은 딱히 쓸일없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영어공부를 거의 놓고 학교생활을 하던 중 취업의 문턱 앞에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한달을 투자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정말 후회없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던 한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1 수업으로 제게 맞는 진도를 나가고 혼자한다는 데서 부담감이 적어 더 열심히 말하고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부분도 바로잡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자신감을 엄청 얻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면 잘하는친구만 이야기하고 옆에서 듣는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말할수있는데서 좋았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확실히 주셔서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한달이 아깝지 않을만큼 돌아보고 왔기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첫 주 한 3 일정도는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선생님들과 무슨이야기를 해야할지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떠나는날은 한국에 가는것보다 여기 남아서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께서 망설임없이 도전하시고 필리핀어학연수에 가서서 원하는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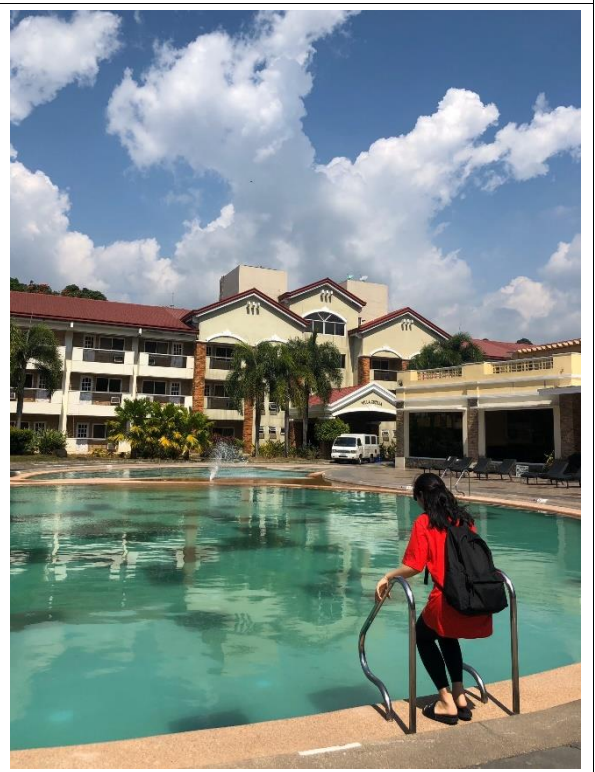
평일 activity – 2020 my goal 말하기
다시한번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라 정말
좋았어요



평일 activity-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 voca선생님인
Juliet 선생님과 !



매주 금요일은 fun Friday 라서 컨셉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해요 ! 이 날은
컬러풀데이라서 초록색으로 입었어요!



풀빌라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공부하고 밥먹는 곳이고 숙소에서 걸어서
이 수영장만 지나면 갈수있어요 !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 자유시간에
수빅베이로 선셋을 보러갔어요!
정말 다시보고싶은.. 선센.. 선셋을보며
느끼는 여유가 참 좋았답니다.



평일에 품을 작성하면 선생님과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노래방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nikca 선생님과 같은 스터디
그룹친구들과 함께 나간날이에요!